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영화 오프닝타이틀 시퀀스 표현연구(2012 흥행작 중심으로)

- I. 서론
- II.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 III. 분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방윤경

### 초 록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타이틀 및 스텝들의 이름을 몇 장의 텍스트로 촬영하여 옵티컬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영화 도입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퀀스부터 영화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 나아가 2D, 3D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로 독립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프닝타이틀 시퀀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짧게는 60초 길게는 10분 남짓의 짧은 영상만으로 영화의 콘셉트를 전달하는 동시에 줄거리의 함축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 등 감독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영화와의 독립적이면서도, 분리가 아닌 영화와 하나의 유기체 적이며 독창적인 예술의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이론과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2012년도 한국 흥행 영화 10편의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제작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나아갈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미학적, 기술적인 모델을 제시해 본다.

주제어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영화, 영화 오프닝 타이틀시퀀스, 타이틀 시퀀스

## I. 서론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는 제한된 시간 내에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 및 콘셉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호기심 유발, 관객의 집중 및 감정 이입의 유도, 기대감 상승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며 영화 콘텐츠의 연속된 일부분이 아닌 감독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시각적인 감성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솔 바스(Saul Bass)와 카일 쿠퍼(Kyle Cooper)이다. 솔 바스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The Man With The Golden Arm), 1955>의 영화 타이틀 디자인에서 자막정도의 역할을 하던 영화 타이틀에 주제를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움직임을 붙여넣어 영화타이틀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예술의 한 장르로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솔 바스에 의한 움직임이 표현되는 타이틀디자인은 60년대로 들어서면서 영화타이틀 디자인에 큰 활기를 붙여넣어 많은 타이틀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미쳐 영화타이틀 디자인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솔 바스를 시작으로 1962년에 출생, 예일대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한 카일 쿠퍼(Kyle Cooper)는 손, 면도날 등의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된 실사이미지와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사용한 모션그래픽의 기법을 이용해 혼동과 강박관념적인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영화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세븐(Seven), 1995>을 제작함으로써 영화 계 뿐만 아니라 TV-CF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션그래픽 분야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미라(The Mummy, 1999), 스파이더 맨(Spider-Man, 2002), 슈퍼맨(Superman Returns, 2006) 등의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제작으로 이를 하나의 독자적인 예

\* 이 논문은 2012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 자유공모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홍미희, 「솔 바스(Saul Bass)와 카일 쿠퍼(Kyle Cooper) 작품에서의 화면구도 비교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4(2006), p.667

술 장르로 발전시켜 모션그래픽과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선구자로 대두되었다.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감독은 “Seven의 오프닝을 모방한 영화 17편과 광고 8백만 개를 봤는데, 세븐 오프닝이 가장 아름답다.”<sup>2)</sup>라고 말 할 만큼 역사에 남을 작품을 만든 모션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영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화의 콘텐츠와 연결되는 연결형이다. 이 유형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화시작과 동시에 타이틀 시퀀스가 시작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영화의 도입부가 상영된 후 중간에 시퀀스가 나오는 경우이다.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연결형이라고 구분 짓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 전자의 유형은 영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관객의 집중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요즘 영화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며 영화의 콘셉트 또는 모티브가 되거나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퀀스를 먼저 보여준 후 타이틀 시퀀스가 나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타이틀 시퀀스는 관객이 영화의 타이틀을 수용하기 전에 감독의 의도가 담긴 영상을 미리 접하기 때문에 영화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독립적인 형태이다. 이는 영화의 도입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작된 형태로서, 특히 드라마 보다는 스릴러나 액션물에서 많이 보이고 있으며, 함축적인 암시나 복선을 표현하며 영화의 함축적인 모티브나 매개체를 이용한 독립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표현기법에 있어서 본편과 다른 기법을 통해 이질감을 주거나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상징적, 은유적으로 표현 가능한 오브젝트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엔 영화와 관련이 있거나 영화의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제작됨으로서 영화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영화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

2) 김종무,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영화 타이틀 시퀀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카일 쿠퍼 작품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vol.9(2005), p.137.

에 종속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용도와 목적, 그 의도와 표현 방식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이론을 기반으로 그 구조와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 II.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 1.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키네틱(Kinetic)이란 ‘움직이다’ 라는 뜻의 ‘키네시스(Kinesis)’ 라는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듯이, 움직임의 본질로 하는 미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랑스에서는 역시 같은 어원의 시네티즘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미술을 지칭한다.<sup>3)</sup>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는 키네틱과 타이포그래피의 합성어이다.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란 움직이는 글자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이포그래피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만으로 콘셉트, 의미,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움직임이라는 동적인 요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움직임에서 매체, 공간, 시간, 속도, 리듬, 사운드, 환경 등의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법을 가지게 된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시각화된 어조, 캐릭터 대비, 시간적/공간적 콤포지션 등으로 부호가 대체되고 문장론에 얽매이지 않아 감성적인 자유 시적 표현이 가능하며 가상공간에 시간, 움직임, 사운드의 복합적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중적 의미 부여도 용이하다.<sup>4)</sup> 이러한 점에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타이포그래피와 다른 점을 크게 형태, 시간, 공간, 움직임, 사운드로 구분하였다.

3) 조지 리키, 강현석 역, 『키네틱 아트』, 열화당, 1988, p.78.

4) 김현정,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감정표현 ;20세기 초 표현주의적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분류를 통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 20권 제 5호 통권 73호(2007), p.292.

### 1) 형태(Character)

고딕체로 강하며 정리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세리프 있는 서체로 전통적이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며, 캘리그래피를 통해 글자 자체의 콘셉트를 전달하게 하는 등의 타이포그래피만의 서체, 색상, 크기, 질감 등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색채는 자체의 끊임없는 움직임, 예를 들어 보색 관계라든지 명도의 그룹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 관계를 통한 부단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해낼 수 있다.<sup>5)</sup> 이에 시간이라는 개념과 결부하여 애니메이션의 형태까지 갖춰지게 되면 색상만으로 콘셉트 및 공간연출이 가능해 진다. 형태 부분에 있어서 타이포그래피와 갖은 개념이지만 작은 글씨가 점점 커지는 시간, 공간,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함께 제작되어 형태 부분도 일반 타이포그래피와 다른 점으로 구분하였다.

### 2) 시간(Time)

시간은 일반 타이포그래피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이 있기에 앞 뒤 의 스토리나 전개방식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시간은 필드(Field), 프레임(Frame), 샷(Shot), 씬(Scene), 시퀀스(Sequence)로 구성되어 시간의 길이를 조정 또는 표현할 수 있다. 영화 타이틀 시퀀스에서 짧게는 5초 길게는 12초 이상의 시퀀스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시간을 두고 문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어의 등장 순서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글자들의 조합과 분해에 의해 단어와 문장이 임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요소의 표현이 사람들의 예상을 깨며 감동을 줄 수 있다.<sup>6)</sup> 사운드와 타이포그래피,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강조, 시간의

5)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향연, 2005, p.157.

6) 김현정, 앞의 책, p.301.

흐름, 서사를 가지게 된다.

### 3) 공간(Space)

프레임의 측면에서 직사각형의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은 평면의 이미지와 같지만, 앞뒤의 시퀀스로 인해 시간적인 흐름 및 연속적인 공간을 연출하거나, X축, Y축, Z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의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X, Y축을 이용해서 연결되거나 단절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으며, Z축을 이용하여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 4) 움직임 (Animation)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크기의 변화, 정지와 움직임으로서 특유의 운율성과 연속성을 가진다. 각자의 콘셉트에 맞는 리듬, 강조, 강도, 템포, 속도 등으로 자신만의 특유의 캐릭터를 가진다. 등장(Entrance), 행동(Behavior), 그리고 퇴장(Exit)의 세 가지 형태에서 운동감과 속도감이 표현된다. 일관된 방법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의 반복되는 등장, 행동과 퇴장 속에서 리듬감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템포, 시퀀스를 주어 장면의 감성적 특성을 살릴 수도 있다. 리듬은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흐름을 뜻하며 템포는 반복되는 형태의 빠르기를 측정하며 시퀀스는 논리적인 서열이나 순화하는 패턴에 의해 배열되는 순서이다.<sup>7)</sup>

### 5) 사운드(Sound)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여러 개의 프레임(Frame)이 모여 시퀀스(Sequence)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운드 삽입이 가능하며 구어체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다. 목소리를 표현할 때는 글자 무게의 변화로도 가능하며 단어를 오래 보여주면서 글자를 볼드체로 변하게 하면 더 단정적인 톤으로

---

7) 김현정, 앞의 책, p.298.

느낄 수 있으며 글자 크기로도 어조를 나타낼 수 있다. 글자 크기가 변화하는 정도와 속도에 따라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진다.<sup>8)</sup> ‘영상의 이해’에서 영화음악은 시공간적 배경 관련 정보의 전달의 기능, 인물의 성격묘사,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 복선과 상징 및 역설적 의미의 창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음향 효과는 내러티브적 기능, 상징적 기능, 인물의 내적 정서 표현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시간 바깥, 공간 바깥에 있으면서도 음악은 영화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과 소통한다. 하지만 음악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게 한다.<sup>10)</sup> 이렇게 영화에서의 음악과 음향 효과는 영화의 모든 요소들과 소통하며, 영화의 스토리 전달에 있어 내용 및 편집을 강조하고 때로는 역설적인 의미를 창출해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위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한 방식을 토대로, 2012년도 흥행작 10편을 비교, 분석기에 앞서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기본 구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영화의 첫 부분에 영화 제목과 주요 출연자, 제작자 등의 정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약 2분 내외의 영상. 대체로 메인타이틀(main title)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영화 제목이 먼저 나오고 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로고와 주요 출연진 및 제작진 명단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한다.

위에서 보듯이, 영화사전 (영화사전, 2004.9.30, Propaganda)에서 오프닝 타이틀(Opening Title)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를 분석해 보면 길이, 형식면에서 위와 같이 정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에 저자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를 크게 오프닝 크레디트와 오프닝 메인타이틀로 구분 짓도록 하겠다. 오프닝 크레디

8) 김현정, 앞의 책, p.299.

9) 곽한주, 방혜진, 윤성은, 한창호, 『영화와 TV의 미학적, 사회학적 접근』, DIMA, 2009.

10) 박성수, 앞의 책, p.123.

트에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 배급사, 감독, 주요 연기자, 미술 담당, 음악 담당 등의 주요 제작진의 소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고, Black Solid Layer에 제작사, 배급사만 나오는 크레딧과 영화이미지위에 주인공, 감독 이름이 따로나오는 크레딧의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포함하여 오프닝 크레딧이라고 칭하고, 메인타이틀은 영화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로고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 타이틀이 나오는 부분을 메인타이틀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 Ⅲ. 분석

분석대상은 영화진흥위원회(KOFIC) 정책연구실에서 발표한 2012년도 결산에 따라 전국매출액별 전국관객수를 따져 10위를 정해 이를 기본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4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5위인 <범죄와의 전쟁>을 제외하고 전국 매출액과 전국 관객 수의 비율은 일치하였으므로, 전국 관객 수를 기반으로 흥행작을 따져 1위 <도둑들>, 2위 <광해, 왕이 된 남자>, 3위 <늑대소년>,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5위 <범죄와의 전쟁>, 6위 <내 아내의 모든 것>, 7위 <연가시>, 8위 <건축학 개론>, 9위 <댄싱퀸>, 10위 <부러진 화살>을 분석하였다.

1위인 <도둑들>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은 총 9분 45초이며, 1분 2초 동안 영화 시작 전에 영화의 콘셉트를 표현하는 비비드한 컬러로 각각 캐릭터들의 색상을 부여한 카툰 이미지의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통해 주인공 소개가 이루어 졌으며, 실사 기반으로 한 모션그래픽 작업을 통해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영화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의 색깔과 특성이 강함을 암시하여 준다. 리얼리즘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색채 사용이 아니라 색채가 그 자체로 자율적인 측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색채 자체가 자립적이고 주요한 시각의 대상이 됨으로서 색채 공간은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데<sup>11)</sup> 이 영상에서의 각 색상은 주인공의 개성과 성격을 재해석한 하나의 객체로 해석되며 색상이 영화의 고유한 주체가 되고 있다. 주인공 소개가 끝난 1분 3초부터 9분 38초까지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동시에 스텝들 소개가 이루어지며, 이는 검정색의 그림자를 가진 노란색의 고딕체가 이탤릭체의 형태로 왼쪽과 오른쪽 하단으로 번가라가면서 컷으로 등장하고 사라지며, 컷의 빠른 전개방식과 많은 컷들의 사용으로 긴장감과 속도감을 표현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타이틀은 노란색의 고딕서체로서 사선의 형태로 카툰의 이미지에 맞게 재 디자인된 서체를 사용하였고, 영화의 배경 이미지에서 Black Solid Layer와 오버랩(Overlap) 되며 와이퍼(Wiper)의 전개방식으로 등장하고 컷(Cut)으로 사라지는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즉각적 변화를 일으켜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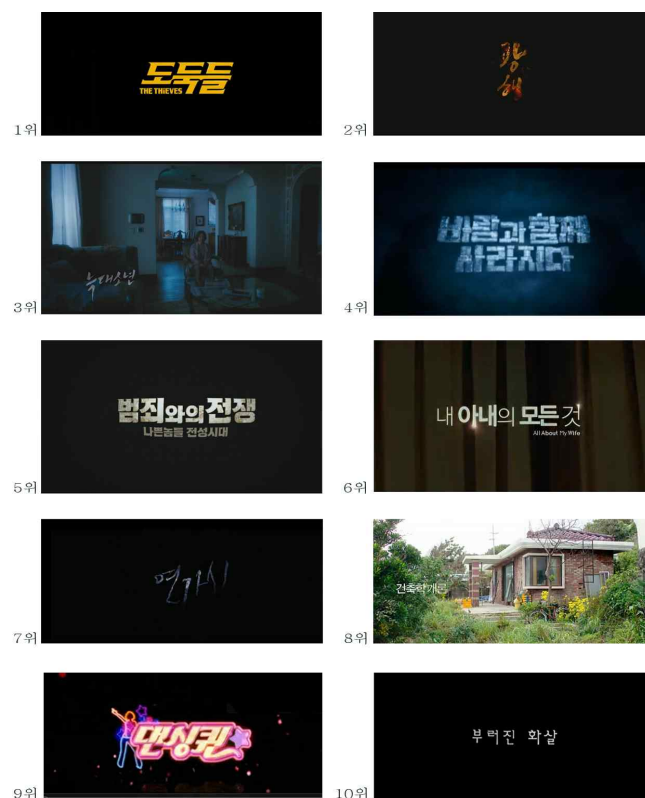


그림 1. 순위별 영화 메인타이틀시퀀스

11) 박성수, 앞의 책, p.151.

2위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2분 33초이며, 오프닝 크레디트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42초까지는 Black Solid Layer 위에 하얀색의 고딕체를 중앙에 정렬하여 스텝 소개를 하였으며, 43초부터 영화 시작과 함께 세리프가 있는 궁서체로 제작자를 소개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렬로 시작하여 왼쪽, 오른쪽에서 다시 중앙으로 컷의 전개방식을 통해 제작되었다. 2분 22초부터 10초 동안 메인타이틀 시퀀스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Black Solid Layer 위에 노란색이 가미된 붉은색의 캘리그래피가 세로쓰기 형태로 등장하며, 시대적 배경인 조선 시대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형태로서, 영화의 집중과 몰입도를 높이고 있으며, 붉은 연기의 파티클 효과와 페이드인(Fade In)으로 등장하여 페이드아웃(Fade Out)으로 사라지는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무겁고,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3위인 <늑대소년>의 오프닝 타이틀 길이는 1분 58초이며, 오프닝 크레디트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18초까지 Black Solid Layer 위에 하얀색의 명조체를 중앙에 정렬하여 제작사와 배급사를 소개하였고, 19초부터 1분 52초 사이에 영화가 전개되면서 흰색 명조체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나타나며, 메인타이틀에서 캘리그래피를 사용하여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부각시키면서 투명도를 약 90프로를 주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오프닝 크레디트에서와 똑같은 방식의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형태로 전개되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였으며, 왼쪽 하단에 치우치게 위치하여 고립과 단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2분 58초이며, 오프닝 크레디트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31초까지는 Black Solid Layer 위에 하얀색의 고딕체를 중앙에 위치하여 투자, 기술, 총괄, 제작사를 소개하였고, 32초부터 영화가 시작하며 55초부터 영화 이미지위에 흰색 고딕체로 스텝들 명단이 컷의 전개방식으로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에 위치하며 종료된다. 메인타이틀 시퀀스는 주인공의 이름과 함께 제작되었

순위	1위 (전국 관객 수 ;12,983,182)	2위 (전국 관객 수 ;12,319,390)	
영화제목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 장르	액션, 드라마	드라마	
감독	최동훈	추창민	
오프닝타이틀 유형	독립적 형태, 2d animation	연결형	
총 러닝타임	9' 45 ''	2' 33 ''	
오프닝 크레딧	백그라운드 이미지	black solid layer와 영화 내 주인공 이미지의 mask작업	영화 이미지와 사운드
	서체	고딕	명조체(궁서체)
	색상	vivid color (pink, yellow, blue, violet etc)	white
	전개방식	wiper -> cut	cut -> cut
	위치	X, Y축에 위치 및 이동	중앙정렬->왼쪽->오른쪽 ->중앙정렬
	구성	2가지	2가지
	사운드	background music	영화 내 사운드
	러닝타임	4 '' (9 '41-9' 45)	10 ''(2 '23 "-2 '33 '')
메인 타이틀시퀀스	백그라운드 이미지	black layer와 영화 내 주인공 이미지의 mask작업	black solid layer
	서체	고딕체	캘리그래피
	색상	yellow	yellow
	전개방식	wiper -> cut	fade in -> fade out
	위치	중간정렬	중간정렬 (세로형)
	사운드	background music	효과음
	이펙트, 애니메이션	mask animation (black layer와 텍스트간의 마스크작업)	연기 파티클(붉고 노란색의 연기가 타이틀로 오버랩 됨)
	표현기법	cartoon 형태의 mask animation	연기 파티클(particle)

표 1. &lt;도둑들&gt;

표 2. &lt;광해, 왕이된 남자&gt;

으며, 1분 23초부터 시작하여 Black Solid Layer 위에 얼음을 훑  
치기 위한 본격 작전에 관한 스토리의 영화로서 가장 중요한 매  
개체인 얼음을 소재로 3D 애니메이션을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

순위	3위 (전국 관객 수 :6,654,390)	순위	4위 (전국 관객 수 ;4,897,551)	
영화제목	늑대소년	영화제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장르	드라마	영화 장르	코미디	
감독	조성희	감독	김주호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오프닝타이틀 유형	독립적 형태, 3d animation	
총 러닝타임	1 '58 "	총 러닝타임	2' 58 "	
오프 닝타 이틀	백그라운드	black layer와 영화이미지	백그라운드	얼음을 모델링한 3d animation
	서체	명조체	서체	명조체
	색상	white	색상	white
	전개방식	fade in -> fade out	전개방식	cut -> cut, particle
	위치	왼쪽과 오른쪽 반복	위치	X,Y,Z 축에 위치 및 이동
	사운드	영화 내 사운드	구성	2가지
메인 타이 틀시 퀀스	러닝타임	5"(1'53"-1'58")	사운드	background music
	백그라운드	영화내이미지	러닝타임	8 " (2 '50' '-2' 58 " )
	서체	캘리그래피	백그라운드	black solid, blue blur
	색상	white	서체	캘리그래피
	전개방식	fade in -> fade out	색상	white
	위치	왼쪽	전개방식	fade in -> cut, z축 이동
	사운드	영화 음악	위치	중간정렬
	이펙트	opacity	사운드	background music, 효과음
표현기법	없음	이펙트	particle (연기, 얼음 조각의 파티클)	
		표현기법	3d layer의 카메라 워킹, particle	

표 3. <늑대소년>

표 4.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주인공의 이름들은 얼음의 형태의 아웃라인을 따라 카메라 앵  
글, 움직임과 같이 이동한다. 이때 명도가 낮고 정의하기 애매한

검정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은 실제 얼음과 물에서는 찾기 어려운 자유로운 색채 사용으로 인해 색채의 흡수성을 통해 무규정적인 공간을 연출하였고, 메인타이틀은 얼음 느낌의 파란색의 블루어(Blur)이펙트를 타이틀 밑에 놓음으로서 신비스럽고 몽환적인 느낌을 파티클 이펙트를 통해 표출하였다. 타이틀은 반투명의 형태라 흰색글씨이지만 뒤의 파란색이 비추는 형태로 제작되어 얼음과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Z축 화면 안에서 등장한 얼음 파티클이 흰색 고딕체의 타이틀을 이루고 타이틀이 얼음 파티클로 변하면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형태로 1분 35초 동안 진행된다.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2분 22초이며, 오프닝 크레디트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19초까지는 사운드 없이 Black Solid Layer 위에 하얀색의 명조체를 중앙에 위치하여 제작사를 소개하였고, 20초부터 영화가 시작하며 21분 15초까지 영화 이미지위에 흰색 명조체로 스텝들 명단이 컷의 전개방식으로 양쪽에 동시에 위치하면서 진행된다. 메인타이틀 시퀀스는 총 7초로서 영화내의 사운드와 효과음이 어우러져 페이드인으로 등장하여 Y축으로 글씨가 줄어들면서 글씨 자간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글씨 자간들이 줄어드는 트래킹(Tracking Animate Text)과 흔들리는 듯한 플링커(Flinker) 효과로 다소 불안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컷 형태로 사라진다.

<내아내의 모든 것>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5분 40초이며, 8초까지는 Black Solid Layer 위에 흰색의 고딕체를 중앙에 위치하여 제작사를 소개하였고, 9초부터 영화가 시작하며 5분 34초까지 오랜 간극을 두고 흰색 고딕체로 스텝들 명단이 컷의 전개방식으로 양쪽 위치하며 나타나는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메인타이틀 시퀀스는 총 5초로서 영화의 실시간 이미지와 영화 속 주인공인 아내의 신비스럽고 정열적인 이미지를 암시해주는 금색 커튼의 일러스트 이미지가 오버랩 되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타이틀은 흰색 고딕체를 사용하였으며 10

번의 렌즈 플레어(Lens Flare)효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마스크 작업을 통해 텍스트가 아웃라인부터 등장하여, 사라질 때는 한꺼번에 페이드아웃 되면서 사라는 형태로 주인공의 알 수 없는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순위	5위 (전국 관객 수 ;4,710,454)	순위	6위 (전국 관객 수 ;4,598,583)		
영화제목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영화제목	내아내의 모든 것		
영화 장르	드라마	영화 장르	멜로, 애정, 로맨스, 코미디		
감독	윤종빈	감독	민규동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총 러닝타임	2' 22 "	총 러닝타임	5 '40 "		
오프닝타이틀	백그라운드	영화이미지	오프닝타이틀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영화 이미지
	서체	고딕체 (세리프 있음)		서체	고딕체
	색상	white		색상	white
	전개방식	cut -> cut		전개방식	cut -> cut, particle
	위치	중간 맞추기		위치	양쪽 맞추기
	구성	2가지		구성	2가지
	사운드	영화 사운드		사운드	영화 사운드
메인 타이틀 시퀀스	러닝타임	7 "(2;15" -2' 22" )	메인 타이틀 시퀀스	러닝타임	5 "(5 '35-5' 40" )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백그라운드	illustration (금색 커튼이미지 )
	서체	고딕체		서체	고딕체
	색상	white		색상	white
	전개방식	fade in -> cut		전개방식	fade in -> fade out
	위치	중간정렬		위치	중간정렬
	사운드	효과음, 영화 내 사운드		사운드	background music, 효과음
	이펙트, 애니메이션	tracking (animate text) 효과와 Flinker(조금씩 살짝 흔들리는 효과)		이펙트, 애니메이션	lens flare, opacity(range selector)
표현기법	tracking animation	표현기법	range selector의 값을 이용한 text animation		

표 5.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

<표 6. 내아내의 모든 것>

7위인 <연가시>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50초로서, 38초까지는 Black Solid Layer 위에 흰색의 고딕체를 중앙에 위치하여 사운드 없이 배급사와 제작사를 소개하였고, 39초부터 12초 동안 물의 리플렉션(Reflection)효과가 마스크 작업을 통해 물이라는 소재의 공포를 표현해주는 캘리그래피로 제작된 타이틀 안으로 삽입되면서 생성되어 페이드아웃으로 사라지며, 타이틀은 흰색과 파란색의 색채 음영의 배치를 설정하여 공간감을 만들었다.

순위	7위 (전국 관객 수 ;4,513,026)		순위	8위 전국 관객 수 ;4,110,645)	
영화제목	연가시		영화제목	건축학개론	
영화 장르	드라마, 모험		영화 장르	드라마	
감독	박정우		감독	이용주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총 러닝타임	50 “		총 러닝타임	1 ‘48 “	
오프닝타이틀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오프닝타이틀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서체	고딕체		서체	고딕체
	색상	white		색상	white
	전개방식	cut -> cut		전개방식	cut -> cut
	위치	중간 맞추기		위치	중간 맞추기
	사운드	no sound		사운드	no sound
메인 타이틀시퀀스	러닝타임	12" (38 “-50” )	메인 타이틀시퀀스	러닝타임	8 “(1 ‘40” -1’ 48 “)
	백그라운드	black solid		백그라운드	영화 이미지
	서체	캘리그래피		서체	고딕체
	색상	blue		색상	white
	전개방식	fade in -> fade out		전개방식	fade in -> fade out
	위치	중간정렬		위치	왼쪽정렬
	사운드	효과음		사운드	영화 내 사운드
	이펙트	reflection, mask,		이펙트,	opacity
표현기법	mask animation	표현기법	없음		

표 7. <연가시>

표 8.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에서 19초까지의 오프닝 시퀀스는 위의 <연가시>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며 20초부터 영화가 시작되는데 52초부터

영화 이미지 위에 흰색 고딕체가 오른쪽 정렬로 주인공과 감독이 소개되며, 1분 40초부터 8초 동안 투명도 90프로인 흰색의 고딕체로 제작된 타이틀을 왼쪽에 정렬시킴으로서 왼쪽이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인 고립감, 감정적 지배를 강화시키며<sup>12)</sup> 페이드인으로 등장하였다가 페이드아웃의 형태로 전개된다.

순위	9위	국관객수 ;4,057,546)	순위	10위 (전국 관객 수 ;3,450,941)	
영화제목	댄싱퀸		영화제목	부러진 화살	
영화 장르	코미디, 드라마		영화 장르	드라마	
감독	이석훈		감독	정지영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오프닝타이틀 유형	연결형	
총 러닝타임	3 '59 "		총 러닝타임	2 '50 "	
오프닝 타이틀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오프닝 타이틀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서체	고딕체		서체	고딕체
	색상	white		색상	white
	전개방식	cut -> cut		전개방식	cut -> cut
	위치	중간 맞추기		위치	중간 맞추기
	사운드	영화 사운드		사운드	no
	기타	3 '49 "-3' 52" 영화 속 이미지와 사운드 위에 흰색 고딕체의 타이포그래피가 중간에 위치하여 감독 소개 함		기타	16 "부터 영화이미지와 사운드가 나오면서 중간에 2" 씩 black solid layer에 white 고딕체, 중간 맞추기로 주인공 소개
메인타이틀시퀀스	러닝타임	7 "(3 '52" -3' 59 ")	메인타이틀시퀀스	러닝타임	6 "(2 '44" -2' 50 ")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백그라운드	black solid layer
	서체	고딕체, 이탤릭		서체	명조체 (타이프 체)
	색상	vivid color		색상	white
	전개방식	cut -> cut		전개방식	cut -> cut
	위치	중간정렬		위치	중간정렬
	사운드	background music, 효과음		사운드	영화 사운드
	이펙트	neon, particle, blur, glow, reflection, shadow		이펙트	no
	표현기법	particle		표현기법	no

표 9. 댄싱퀸

표 10. 부러진 화살

12) 우경훈,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의 표현 주제와 표현 방식 간의 연관성 고찰」,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31호(2011), p.9.



<댄싱퀸>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3분 59초이며, 오프닝 타이틀의 첫 번째 형태는 <연가시>의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와 같으며, 35초부터 영화가 시작하며 45초까지 흰색 고딕체로 주인공 소개를 양쪽 맞추기로 전개하고 46초부터 타이틀 없이 영화가 진행되고, 오랜 간극을 보인 후 3분 49초부터 3분 52초까지 흰색 고딕체로 감독소개가 중간 맞추기로 위치하여 컷의 형태로 진행된다. 3분 52초부터 7초 동안 메인타이틀이 상영되는데 Black Solid Layer 위에 분홍색의 세리프가 있는 고딕체의 메인타이틀이 이탤릭체로 등장하며 보라색등의 네온효과, 깜박이 효과, 글루어(Glow) 효과로 네온사인 효과를 극대화 시켜 화려함을 부각시켰으며, 블루어, 글로우 효과 및 노란색상의 리플렉션 효과로 여성적인 감각을 보여주며, 비비드한 색상의 파티 때 뿌리는 종이와 같은 느낌의 파티클이 되면서 Z축을 중심으로 화면 밖으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부러진 화살>의 전체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길이는 2분50초이며, 이 역시 오프닝 타이틀의 첫 번째 형태는 위와 같으며, 16초부터 영화가 시작하며 약간의 간극을 보이다가 2분 20초부터 black solid layer가 2초 간격으로 등장하며 그 위에 흰색 고딕체, 중간정렬로 사운드 없이 주인공 소개가 이루어진다. 2분 44초부터 6초 동안 Black Solid Layer 위에 흰색의 타이프 체의 메인타이틀이 컷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며, 사실감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무런 이펙트나 애니메이션 없이 진행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12년도 흥행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시퀀스에서 나타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오프닝 타이틀은 영화의 장르, 콘셉트, 내용 등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컴퓨터

CG(Computer Graphics)의 발달로 1990년대의 메인타이틀과 비교해 볼 때, 어간과 자간의 움직임과 더불어 각 낱자의 움직임의 다양한 이펙트 및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통해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러닝타임은 평균 208초, 타이틀 시퀀스는 10초로 나타났으며,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에서 오프닝 타이틀은 2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첫 오프닝 타이틀에서는 사운드 없이 Black Solid Layer 위에 3편은 명조체, 7편은 하얀색의 고딕체를 중앙에 정렬하여 제공사, 배급사의 타이포그래피가 등장함으로써 영화 시작 전 주목성을 부각 시켰다. 이 후 2편은 각 각 2D애니메이션과 3D애니메이션의 제작기법을 사용하며 영화와는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고, 나머지 8편은 모두 연결형으로서 첫 오프닝 타이틀이 종료된 후 영화가 시작되어 영화의 시퀀스위에 흰색의 타이포그래피로 1편은 와이퍼에서 컷으로, 2편은 페이드인으로 등장하여 페이드아웃으로, 나머지는 모두 컷으로 시작되어 컷의 형태로 장면전환 되었다. 메인타이틀의 분석 결과, 한 편만 명조체를 사용하였고 5편은 고딕체이며 나머지 4편은 손으로 글을 쓴 후 스캔을 받아 디지털작업을 한 캘리그래피로 제작되었다. 2010년도 국내 흥행작의 오프닝 타이틀에서의 70%로가 캘리그래피의 방식이었다는 결과<sup>13)</sup>와 비교해보면 영화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캘리그래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타이포그래피의 색상은 파란색 1편, 노란색 2편,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작품이 1편, 나머지 여섯 작품은 흰색으로 제작되어 명시성을 높였으며, 드라마 장르 중 왼쪽 하단으로 위치한 2편을 제외한 8작품은 중간에 위치 시켜 강한 이미지와 더불어 관객의 집중과 주목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작품은 효과음, 3작품은 영화음악과 효과음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메인타이틀은 영화음악을 사용하였다. 1990년도의 작품들에서의 메인타이틀은 주로 크기의 변화로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주었

13) 김도식, 「국내 영화 타이틀 시퀀스의 표현기법과 경향에 관한 사례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3, p.67-75.

고,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의 퇴장과 동시에 타이틀의등장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주로 사용한 것<sup>14)</sup>에 비해 2012년도의 작품에서 사용된 애니메이션과 표현기법을 분석해보면, 레인지 선택터(Range Selector)값을 사용하여 날자 하나하나에 효과나 애니메이션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2편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화는 아무런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법은 타이포그래피 안쪽에도 이미지, 효과 및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 여러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마스크 애니메이션과 방향성, 강도, 투명도, 재질감과 생명력을 가진 많은 양의 작은 입자들로 아름다움과 신비감을 연출할 수 있는 파티클 이펙트였다.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프레임 별로 표현하기 위해 CG(Computer Graphics)기술 중 레인지 선택터를 통한 마스크 애니메이션과 파티클 이펙트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티클 플러그인에 대한 깊은 연구로 인해 더욱 다양한 파티클의 표현 방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본질적인 의도를 상기하여 더욱더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2012년도 이전의 영화 타이틀 시퀀스의 표현기법을 테크닉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입체 영화와 4D영화의 영상 산업에서 사용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곽한주, 방혜진, 윤성은, 한창호, 『영화와 TV의 미학적, 사회학적 접근』, DIMA, 2009.
- 박성수, 『애니메이션 미학』, 향연, 2002

14) 김인철, 「영상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국내외 영화 크레딧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통권20호(1997), p.253-262.

- 조지 리키, 강현석 역, 『키네틱 아트』, 열화당, 1988.
- 김도식, 「국내 영화 타이틀 시퀀스의 표현기법과 경향에 관한 사례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3, p.67-75.
- 김인철, 「영상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국내외 영화 크레딧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통권 20호(1997), p.253-262
- 김종무,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영화 타이틀 시퀀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카일 쿠퍼 (Kyle Willis Jon Cooper) 작품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vol.9(2005), pp.129-138.
- 김현정,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감정표현 ; 20세기 초 표현주의적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분류를 통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제 20권 제 5호 통권 73호(2007), pp.291-302.
- 우경훈,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의 표현 주제와 표현 방식 간의 연관성 고찰」,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31호(2011), pp.1-11.
- 홍미희, 「솔 바스(Saul Bass)와 카일 쿠퍼(Kyle Cooper) 작품에서의 화면구도 비교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4(2006), pp.663-674.

Braha, Yael · Byrne, Bill, *Creative Motion Graphic Titling for film, video & the web*, Elsevier Inc., 2011.

Jewitt, Carey, *Technology, Literacy and Learning ; A multimodal approach*, Routledge, 2006

Rabinowitz, Tova, *Exploring Typography*, Thomson, 2006.

Reas, C., Fry, B., Maeda, J., *Processing ; A Programming Handbook for Visual Designers and Artist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7.

## ABSTRACT

### Kinetic Typography in Korean Film, 2012 (Study on the movie opening title sequence expression studies using kinetic typography.)

Bang, Yoon-Kyeong

With the advancement of computers, opening title sequences in movies are continuously improving. Initially, titles and opening credits were created using what is called the optical method, whereby text was photographed on separate film and then copied onto the movies film negative. In contemporary movie making, however, the title sequence may b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beginning of the movie by an insertion method that not only allows for more diverse technical expression, including the use of both 2D and 3D graphics, but also for its emergence as an independent art form. As such a title sequence, in as little as 50 seconds or up to 10 minutes, is able to convey the films concept while also suggesting more implicit intricacies of plot and thereby eliciting greater interest in the movie. Moreover, according to the directors intent and for a variety of purposes, the title sequence, while maintaining its autonomy, is inseparable from the movie as an organic whole;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reate works that are highly original i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inetic typography that appears in title sequences of ten films produced by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in 2012. Production techniques are analyzed in a variety of ways in order to predict the future direction of opening title sequences, as well as present aesthetic and technical models for their creation.

Key Word : Movie, Kinetic typography, Opening title sequence, Title sequence, Opening title

방윤경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조교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학교

Tel : 041-580-2342

bangpd@nsu.ac.kr

논문투고일 : 2013.04.29

심사종료일 : 2013.05.23

게재확정일 : 2013.06.19